1 자유연제 II

What is the Best Indicator about Prognosis in the Severe Burn Patients?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

조용석 · 임해준 · 김도헌 · 허 준 · 전 욱 · 김종현

(서론) 중증 화상환자에서 환자의 예후를 예측 가능한 가장 좋은 paramenter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 국외 보고 일뿐 국내 연구 결과는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화상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변수나 혈청 marker들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 한다면 화상환자의 사망률 및 이환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대상 및 방법)** 2007. 01. 01부터 2007. 12. 31까지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에 입원한 환자 중 흡입화상이 의심되어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한 15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ASBI score, serum latate, base deficit 등 여러 인자들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 환자 151명중 남자는 109명, 여자는 41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43.1세였다. 평균화상범위는 33.4%였고 대부분 화염화상(147명)이었다. 기관지 내시경은 입원후 평균 1.6일내에 시행되었고, 내시경 소견상 Grade I 119명(78.8%) Grade II 30 (19.9%) Grade III 2명(1.3%)이었다. ABSI score는 평균 8.48이었고, 내원 당일 측정한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5.3 이었다. 평균 BD (base deficit)차이(PBD1째: 내원당일 측정 후 24시간 뒤에 측정한 BD값 - 내원당일 측정한 BD값)는 5.3이었고, 평균 혈중 lactate 농도는 내원 당일 4.2, 내원 1일째는 2.9였다. 각 독립변수별로 사망자와 생존자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ABSI score, 초기 일산화탄소 혈중농도, BD1-BD0, 혈중 latate농도가 생존자와 사망자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치를 보였다. 사망유무와 각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ABSI, BD차이와 내원 당일 혈중 lactate level, 내원 둘째날 lactate level 모두 사망유무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0.260, r=0.387, r=0.488). x^2 검정방법을 사용하여 사망유무에 따른 가 독립변수의 하위범주별 관계를 파악하였고 BD차이 및 혈중 lactate level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혈중 lactate level에 따른 사망 유무(연관성)을 측정하였다. 내원당시 lactate level이 비정상 범주였다가 내원 2일째 정사 범주로 좋아진 경우 생존율이 더 높았다. **(결론)** 혈중 lactate level 및 BD차이는 환자 환자의 예후 인자로 볼 수 있으며 조기에 적극적인 수액치료를 통해 혈중 latate level를 낮춘다면 화상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 시킬수 있으리라 사료된다.